

## 제49차 정기총회 및 제19대 권영창 회장 취임

### 권영창 후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대중회 회장으로 추대



안동권씨 대중회 제49차 정기총회가 2023년 5월 24일 11:00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내빈소개, 공로패 수여, 장학증서 수여, 경과보고, 회장 인사, 감사보고, 예결산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회장 추대 및 감사 선출, 신임 회장 취임사, 명예회장에 대한 감사장과 공로패 증정, 만세삼창 순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권오록, 권계동 고문, 권철환 수석부회장, 권경석,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오덕, 권영상 변호사, 권길상,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혁창 감사, 권영하, 권정택, 권기욱, 권순우, 권광택 상임위원,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권영호 전 부산총회장, 권태호 지역총회장단협의회 회장, 권종희 상주총회장, 권정택 검교공파총회장, 권병돈 정간공 총종 회장, 권영성 화백,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용기 대전총회장, 권병선 장화공 종중 회장, 권정호 서울청장년회장을 비롯하여 안동총회회 30여명과 영주총회회 회원 30여 명이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입주의 여지없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먼저 권해옥 회장은 그간 대중회 발전에 기여한 권중도 고문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권규보 양 등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관련기사 3면)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년 동안 제17대 18대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오늘 이 인사말은 이임사이자 고별사이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모두 건강하시고 크게 발전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임사)

권혁창 감사는 감사보고를 했다. 예산 결산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권오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투표를 통해 선출했으며 이사와 종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권오덕 변호사와 권혁창 사무사를 만장일치 감사로 선출했다. 권해옥 회장은 회원들에게 제19대 회

장에 권영창 후보자를 추대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큰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권영창 후보가 제19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했다.

권영창(權耀昌) 신임 회장은 먼저 지난 6년 동안 대중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권해옥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선포하였다. 이어서 권영창 회장은 권해옥 명예회장에게 감사장과 관례에 따라 행운의 열쇠를, 권갑수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은 권해옥 명예회장에게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각각 증정했다.

권영창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하

기 전에 단상 위에서 축진들에게 큰절을 했다. 취임사에서는 권해옥 회장님께서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무국 활성화와 위한 사업담당 신설,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관리, 헌수 운동, 인터넷 족보에 대한 대책 강구, 카톡방과 유튜브를 개설한 홍보 강화, 전국 청장년을 임원으로 확충하여 대중회가 젊어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춘추향제 때 학술발표회와 문학회, 시·시 낭송 행사 등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능동성향회와 대중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단체와 업체 개인이 직접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장학회를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시조 태사공 동상 건립과 영정 제작, 박물관과 같은 유물기록관 건립을 추진하여 능동을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역사 인물 찾기, 효자 효부 발굴, 권현인비문 성역화, 양촌 권근 선생의 강리도 복사본 제작, 추원루 보수, 권을 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등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산, 대구, 안동, 대전, 서울, 강원도 지역 등을 찾아다니면서 소식도 전하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재 종보를 4000부 발행하여 3400여 부수를 배부하고 있는데 각 지역을 순회하며 10,000부 배부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권영창 신임 회장은 '현재 임원은 전원 유임하고, 능동 성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의결을 받아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현재 임원의 1/3만이 회비를 내고 있는데, 제가 먼저 운영비 1천만원과 기금조성비로 1천만원을 내놓겠으니 여러분께서도 찬조금과 회비도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앞장서겠으니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끝으로 권계동 대중회 고문의 선장으로 대중회 만세! 안동권씨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자 전 축진들도 우렁차게 외치며 제49차 정기총회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권행완 편집국장

### 이임사(離任辭)



권해옥 회장

존경하는 축진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각자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경향각지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중회장을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71년 8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공화당 공천을 받아 고향인 합천에서 전국 최연소자(만35세)로서 출마하였으나 당시 영남권에서는 신민당 바람이 거세게 불어 현역 국회의장 이효상 등 거목들이 전멸 상태가 되어 저도 함께 예측하기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당시 합천에서는 우리 축진들이 약 800여 호 살았는데 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잘 모르면서 성이 권씨라는 이유로 우리 집안 동생, 조카, 친척이 출마하였으니 한 표 부탁한다고 동리에서 선거운동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 집에서 술을 담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면서 선거운동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서울에 와서 보니 마침 서울에 안동권씨 화수회가 있어서 당시 영천 출신 전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신 권중돈 의원님과 힘을 합쳐 안동권씨중앙총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에 권중돈, 간사장(사무총장)에 권해옥이 맡아 모든 축진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을 지낸 지 수십 년 후에 대중회의 재산이 반토막이 났다. 대중회 회관이 대로변 7층의 새 건물에서 청량리 낡은 건물을 같은 가격(25억)으로 사고 팔고 취득세, 양도세 세금만 8억여 원을 납부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500여 년간 지켜온 추향제(시제)를 날씨가 추다고 해서 10월 중정일을 9월 하정일로 바꿔서 봉행하여 2016년에는 10월 중정파(참제원 약 200여 명)와 9월 하정파(참제원 약 70여 명)로 나뉘어 두 번이나 추향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조님 추향제의 10월 중정일을 지키기 위해, 안동권씨 대중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뜻을 같이하는 권용열 회장, 권익현 대표, 권중동 장관, 권영의 수석부회장, 권영성 영천시의회 의장, 권오신 MBC 보도국장, 권오덕 변호사, 권혁창 세무사, 권태호 충북도총회장, 권태복 금천총회장, 권주연 전 안동총회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영하 서울시의회 의원, 권승구 서울지역총회장, 권희철 부회장(안양), 권종화 광주총회장, 권오영 울산총회장, 권동술 합천회장, 권영복 함천회장, 권기택 청주총회장, 권용기 대전총회장, 권영복 부회장(용산), 권순환 전 안동농협 조합장, 권철환 안동총회장, 권오윤 부회장, 권태왕 이사, 권승호 이사, 권순용 이사, 권기성 이사, 권병준 이사, 권오준 이사(중구), 권대능 안동 청년회장, 권영일 이사, 권오준 이사(강남), 권혁중 이사, 권영진씨 등 많은 정,관,계,재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힘을 합쳐 반대 투쟁을 해서 기필코 정상화를 시켜 오늘까지 10월 중정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된 이후 2017년에는 향사 이래 최대 규모인 600여명이 참석하여 유건 500개를 제작하여 참제자 모두가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천등산 기슭에 구름처럼 모여 향사를 봉행하였으니 우리 권문의 위상과 권위가 안동 시내에 울려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100만 축진의 헌법인 대중회 정관을 개정하여 대의원제(선거)를 추대형식으로 변경하였고, 대중회의 명칭을 대중회로, 총제, 부총제라는 권위적인 명칭을 회장,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으로 바뀌서 이번 제19대 회장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 종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는 절차로 개선하여 선거로 인해 축진끼리 이전투구하고 상호 비방하는 권력구조를 개선하여 오늘 이렇게 성대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회 경영개선을 통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경영합리화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6.7명이었던 인력을 감축하고, 타 성씨에 맡겨져 있던 종보를 대중회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변경하여 연간 2-3백만원 하던 수입을 3-4천만원 이익을 내어 8천만원을 예치해 두었으며, 사무총장직을 유급에서 명예직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능동성향회 사업으로 권용열 고문의 협조로 평창공과 학림공의 사적비를 건립하였으며, 권오록 고문의 시조 묘소 임구 표지석을 세워 시조님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부예산 1억 6천을 확보하여 묘소 집입로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권광택 도의원과 권남희 시의원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재직 시에 1990년 11월 1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어령 장관에게 행주대첩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여 그 이듬해 3월 14일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정부행사로 격상되지 못하고 고양시 유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2017년 5월 대중회장에 취임한 이후 국가행사로 격상하자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문중의 임원 등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9년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문화재 관리법 운운하면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권을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사항을 공약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당시 권영세 선거총괄본부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작년 6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회의 상임고문 오찬희의에서 제가 직접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에서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선 권을도원수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공도 권을도원수가 크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장군 기념행사는 아산 현충사에서 매년 4월 28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봉행하는데 권을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는 3월 14일 고양시 문화원 주관으로 아직도 봉행하는 것은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 평범한 행사이기에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년 전 도난당했던 권을도원수 영정을 권행완 편집국장님과 함께 고양시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정부예산 8천만원을 지원받아 권오창 화백이 성심을 다해 제작하여 지난 3월 14일 행주대첩 기념행사 시 종중사에서 봉안식을 봉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되신 권영창 회장에게 두 가지 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미 시조 표준영정을 제작하고자 권오창 화백과 계약단계에 있으나, 정부승인을 받아 안동에 사당을 건립하여 모시는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서, 향후 시조 표준영정을 제작하고 행주대첩 기념행사는 기필코 국가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지난 6년 동안 내 직장처럼 대중회에 매일 같이 출근하면서 봉사정신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조직을 혁신하고 인재를 발굴하였고, 재정건전성을 높였으며, 안동권문의 대외적 위상과 명예를 드높여 대중회의 흥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100만 축진들의 성원과 고문,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7·18대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 올림

## 취임인사 드립니다



권영창 회장

임원 여러분! 종친회원 여러분!  
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여 회장 취임을 축하하여 주시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우리 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무국 활성화와 종친 간의 유대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일들을 하여야만 합니다. 종보 보급 확대와 장학사업 확대, 능동성지 만들기 위한 조경수 식수사업, 시조 태사묘 동상건립, 유물기록 전시관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위해 출연금 찬조금 회비 등을 내어주신 임원과 종친들의 고마움을 공적비에 이름을 넣어 건립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경수 헌수 운동에 참여한 임원과 종친에게는 식수 기념석을 세우고 꽃나무를 헌수한 종친에게는 명찰을 가족과 함께 달아보는 행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총회와 지역총친회의 협조로 종친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종보를 통하여 대중회 활동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많은 일을 하고 지역별로 능동 아카데미와 간담회를 통해서 승조이념의 고취와 유대 강화로 친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영창 제19대 대중회 회장이 큰절을 하고 있다.

## 제19대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영창